

# 세계박람회를 통한 우리 삶의 변화

World's Fair changed our lives



전기, 아이스크림콘, 상징적 건축, 대화전자,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은 세계박람회와 연관되어 떠오르는 키워드이다. “당신의 미래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라는 카피가 떠오르듯 세계박람회는 근 시대를 통하여 우리 생활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쳐왔다. 인터넷 세상이 된 오늘날, 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은 예전의 그것만 못하지만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건축, 예술, 도시계획 등의 많은 분야에서 최신의 유행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기자는 휴일을 맞아 가보면 관심을만한 전시회 하나를 추천

하고 있다. “Inventing the Modern World: Decorative Arts and at the World's Fairs” 라는 제목으로 피츠버그 카네기 아트 뮤지엄에서 다음달인 2월 24일까지 열리고 있는 세계박람회를 주제로 한 전시회이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세계박람회의 발전과 함께 건축과 기술에 관한 유행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박람회를 꼽으라면 1893년에 시카고에서 개최된 콜롬비아 엑스포일 것이다. 그곳에서 비로소 신고전주의 건축의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으며 이는 미국인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도시와 건축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바꾸고 적

어도 40년 이상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 (피츠버그 소재의 카네기 뮤지엄과 도서관은 그 스타일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이다) 이 박람회를 실무적으로 준비했던 인물은 익히 알려진 시카고 출신 건축사 다니엘 번햄이다. 물론 다른 지역 출신의 건축사들과 협업을 추구했다. 박람회장의 전체 평면은 뉴욕의 Central Park를 설계한 Frederick Law Olmsted에게 그 임무가 주어졌다. 이들 건축사들은 “White City”라는 애칭으로 통하는 박람회 이곳저곳의 건축물들을 디자인 했다. 박람회장의 중심부에 웅장한 돔과 회랑을 반복하는 건물을 놓고 그 위에 전등을 장식해 경관조명을 시도하였는데, 이 광경은 관람객들에게 흔히 보았던 건축물이 조명으로 인해 전혀 새로운 스타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다는 경험을 주었다. 대부분의 건물은 White Stone으로 마감을 한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조 프레임을 감싸는 석회벽 위에 페인트를 바른 것이다. 눈속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것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많은 볼거리들과 새로운 경험 가운데 있는 관람객들에게 이런 작은 부분은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았다. 경관조명이 시도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방문객에게 이것은 태어나 처음 보는 훌륭한 장관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또 다른 명물로 대형 회전 관람차를 꼽을 수 있다. 이것은 George Ferris라는 엔지니어가 발명한 것으로 높이 80미터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에 버스 크기의 관람차를 서른여섯 개나 매달고 있어 많은 이의 관심을 받았다. 이것은 바로 4년 전 파리에서 에펠탑이 보여진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자존심의 결과이다.

1904년 세인트 루이스에서는 또 한 번의 박람회가 열렸으며 시카고에서 성공한 많은 것들이 다시금 보여진다. 대회전차의 경우 시카고 박람회에서 사용된 후 해체되었다가 다시 조립하여 쓰기도 하였으며 또한 우리가 지금 보는 아이스크림 콘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것이 이때부터이기도 하다.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서는 최신기술을 장착한 많은 열차용 객차, 기관차 그리고 마차 등이 전시되었으며 한쪽 구석에 아직은 형태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지만 아주 실험적인 물건이 “독일에서 온 개솔린 동력 수레”라는 타이틀을 달고 소개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자동차의 시초인 것이다. 하지만 바로 11년이 지난 세인트 루이스 박람회에서는 140여대에 이르는 자동차들이 전시장 곳곳을 진열하게 된다.

번햄과 올스테드가 함께 작업을 하던 1893년의 시카고 박람회, 어쩌면 1904년의 세인트 루이스 박람회까지도 우리는 자동차의 발전으로 야기될 건축과 도시의 변화를 어떤 경로로도 알아낼 수 없었다. 하지만 1939년 뉴욕박람회가 열리자 사람들은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다. 당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던 General Motors의 기획전시관인 “Futurama”는 약 3,300제곱미터 넓이의 공간에 각종 움직이



3



4

01. 1939년 뉴욕 박람회에서 가장 인기를 끈 General Motors의 기획전시관 “Futurama”
02. 오늘날 Ferris Wheel 이라 알려진 대회전 관람차는 George Ferris 라는 엔지니어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03.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콜롬비아 엑스포
04. 1889년 파리 박람회를 기념하여 만들어진 에펠탑

는 모형들로 20년 뒤에 다가올 미국의 모습을 구현하고, 방문객들은 천정에 위치한 좌석에서 넓은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도시들과 그 위를 연결하는 자동차의 행렬을 굽어보게 된다. 70년도 넘은 오래전이지만 이미 고속도로 연결망과 차량을 이용한 도시 이동, 그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의 확장이라는 오늘을 예견하고 그 이미지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 하지만 당시의 박람회를 기획하던 그들에게는 전혀 살아보지 않은 미래, 그 오지 않은 시간들을 예측하고 준비했던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圖

※윗글은 Tribune Review에 실린 World's Fairs Created New Looks라는 기사의 일부를 발췌, 인용하였습니다.